

四象人 手足의 形態學的 特徵

朴恩慶* · 朴性植*

A Morphological Study of Hand and Foot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Park Eun-kyung,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1. PURPOSE

This research is a study on constitutional diagnosis through the external appearances, and for finding shape differences of the hand and foot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2. Method

We collected 148 person who were healthy and measured length, breadth, circumference and thickness of their hands and feet with 'The Measurement of R. Martin'.

We analyzed shape differences of hand and foot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and made a certain conclusion.

3. Results and Conclusions

We got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hand and foot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weight is heaviest in Taeumin.

(2)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Hand.

① The wrist circumference is longest in Taeumin.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 ② The finger length / hand length(ratio) is higher Soeumin than Taeumin.
 - ③ The wrist breadth is largest in Taeumin(only male).
 - ④ The wrist breadth is larger Taeumin than Soeumin(only female).
 - ⑤ The palm length is longer Taeumin than Soyangin(only male).
 - ⑥ The maximum hand breadth is larger Taeumin than Soeumi (only male).
 - ⑦ The 2nd, 3rd and 4th finger length is longer Soeumin than Soyangin(only male).
- (3)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Foot.
- ① The foot thickness is thickest in Taeumin.
 - ② The foot breadth is largest in Taeumin.
 - ③ The ankle circumference is longest in Taeumin(only male).

key word : Sasang Constitution,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Hand, Foot.

抄 錄

1. 연구배경 및 목적

외형적 특징을 통한 사상체질진단의 목적으로 특히,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手足의 체질별 형태학적인 차이를 찾고자 하였다.

2. 방 법

설문지와 임상적 진단을 거쳐 체질이 최종적으로 분류된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Martin식 계측법을 준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手足을 생체 계측을 하였다.

3. 결 과

신체의 특징으로는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몸무게가 무거웠다. 손의 특징으로는 손목둘레, 손 전체에서 손가락이 차지하는 비, 손목너비, 손바닥길이, 손최대너비, 손목너비,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길이에서 체질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발의 특징으로는 발두께, 발너비, 발목둘레에서 체질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중심단어 : 사상체질, 사상체질의 진단, 형태학적 특징, 手足

I. 緒 論

사상인의 구분은 臟局의 大小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 고유한 體質에 따라 生理와 病理 및 病證에 대한 治法이 다르다.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¹⁾의 四端論에서 肺大而肝小者를 太陽人, 脾大而腎小者를 少陽人, 肝大而肺小者를 太陰人, 腎大而脾小者를 少陰人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각 체질에 따른 병리적인 특징이 다르고 치료와 섭생법도 다르므로 체질의 올바른 진단은 사상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마는 체질진단의 기준으로 外形, 心性, 證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외형적 기준으로는 體形氣像과 容貌詞氣를, 心性의 기준으로는 性質才幹과 恒心을, 證의 기준으로 生理的인 體質證과 病理的인 體質病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즉,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체질진단이 주관화로 흐르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사상의학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성분분석법²⁾, 형태계측법³⁻⁷⁾, 설문조사법⁸⁻¹⁶⁾, 생화학적 물질 분석법¹⁷⁾, 유전자의 체질별 특성에 대한 연구¹⁸⁾, 각종 진단기를 이용하여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19,20)}, 손의 지문 연구법²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상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분류를 함에는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東醫壽世保元』에 언급된 체질변증의 기준 중에서 외형상의 차이점, 특히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手足을 연구 항목으로 선정하여 手足의 형태적인 특징을 조사하고 체질을 辨證한 바, 몇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이 연구는 사상인의 手足의 형태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Martin식 계측법²²⁾을 준용 및 개변하여 15개 항목을 설정하여 실제 계측한 것을 고찰한 것이다.

1. 연구대상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국인 학생과 일반인 등을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를 이의주 등(1995)²³⁾에 의한 판별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와 QSCC II에 의한 진단 및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한의사의 임상적 진단을 거쳐 체질이 최종적으로 분류된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사상체질별 분포는 태음인이 55명(37.2%), 소양인이 48명(32.4%), 소음인이 45명(30.4%)이었으며, 태양인은 없었다. 평균 연령은 남자 29.4세, 여자 28.7세 이었고, 남녀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가 103명(69.6%), 여자는 45명(30.4%)이었다(표 1).

2. 사상체질진단

체질진단은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와 QSCC II에 의한 진단 및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한의사의 임상적 검진을 통하여 체질을 분류하였다.

3. 계측방법 및 계측항목

1) 계측방법

사상체질별 手足의 형태를 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길이와 둘레는 줄자를 이용한 실제 계측을 하

표 1. 연구대상자의 사상인별 성별분포

	태음인 N=55(%)	소양인 N=48(%)	소음인 N=45(%)	합계 N=148(%)
남 자	40(27.1)	36(24.3)	27(18.2)	103(69.6)
여 자	15(10.1)	12(8.1)	18(12.2)	45(30.4)
합 계	55(37.2)	48(32.4)	45(30.4)	148(100)

였고, 너비와 두께는 버니어caliper(TAJIMA BLACK-15, JAPAN)를 사용하여 1/10mm까지의 정확도를 지키고자 하였으며, 발길이는 외곽투영도에 의한 발의 형태를 계측하였다. 계측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 전원은 동일인에 의해 계측되었다.

2) 계측항목

계측항목은 Martin식 계측법²²⁾을 준용하여 항목을 선정하였고, 측정부위의 명칭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 ① 손길이(hand length): 掌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모아 손바닥을 펴도록 한 후 요골과 척골의 경상돌기를 잇는 선분의 중점과 셋째 손가락 끝점과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② 손바닥길이(palm length): 掌側. 손을 자연스럽게 모아 손바닥을 펴도록 한 후 요골과 척골의 경상돌기를 잇는 선분의 중점과 셋째 손가락 첫째마디 주름선(palmar digital crest, MP joint)가운데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③ 손가락길이(palmer finger length): 掌側. 손바닥을 펴도록 한 후 각 손가락의 첫째마디 주름선(상동)에서 각 손가락의 끝점까지의 직선거리 다섯개를 측정한다.
- ④ 손너비(hand breadth): 手背側. 손가락을

가지런히 편 후 제 2 中手骨頭와 제 5 中手骨頭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⑤ 손최대너비(maximum hand breadth): 手背側. 손가락은 모으고 손바닥을 펴도록 한 후 엄지손가락은 둘째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밀착시킨 후 제 1 中手骨頭와 제 5 中手骨頭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⑥ 손두께(hand thickness): 手背側. 제3指 中手骨의 중점에서 手背面에 수직으로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⑦ 손둘레(hand circumference): 手背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모아 손가락을 편 후 제 2 中手骨頭와 제 5 中手骨頭를 연결한 점(손너비)을 지나는 둘레를 측정한다.
- ⑧ 손목너비(wrist breadth): 手背側. 요골과 척골의 경상돌기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⑨ 손목둘레(wrist circumference): 手背側. 요골과 척골의 경상돌기를 연결한 점(손목너비)을 지나는 둘레를 측정한다.
- ⑩ 발길이(foot length): 측정하는 발에 체중을 실은 상태의 선 자세에서 발뒷꿈치의 끝점에서 둘째발가락 끝점까지의 최대 직선거리를 모눈종이에 투영하여 그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⑪ 발너비(foot breadth): 측정하는 발에 체중

을 실은 선자세에서 엄지발가락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제 1 中足骨頭)과 새끼발가락쪽에서 바깥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제 5 中足骨頭基節骨) 사이의 직선거리를 앞쪽에서 측정한다.

- ⑫ 발등둘레(foot circumference): 선자세에서 제1中足骨頭와 제5中足骨頭를 연결한 점(발너비)을 지나는 둘레를 측정한다.
 - ⑬ 발목둘레(ankle circumference): 선자세에서 발의 內踝頂點(medial malleolus)와 外踝頂點(lateral malleolus)의 윗가장자리를 지나 는 발목의 가장 가는 부위를 줄자로 측정한다.
 - ⑭ 발두께(foot thickness): 앉은 자세에서 足母指의 中足骨頭的 위치에서 足底面에 수직으로 길이를 측정한다.
- ▶ 손길이에 대한 손바닥길이 비 : 손바닥길이/손길이
 - ▶ 키에 대한 손길이 비 : 손길이/키
 - ▶ 몸무게에 대한 손두께 비 : 손두께/체중
 - ▶ BMI에 대한 손두께 비 : 손두께/BMI
 - ▶ BMI지수: 체중(킬로그램)/신장(미터)²

4. 자료처리 및 통계

이와 같은 측정점을 기준으로 하여 14개 항목의 측정치를 얻었으며, 손길이에 대한 손바닥의 비를 첨가하여 15개 항목을 좌우 각각으로 하여 30개 항목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키, 체중, 비만도 등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키와 체중을 재고 BMI지수(체중(킬로그램)/신장(미터)²)를 구하였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상인별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유의수준 P<0.05).

측정항목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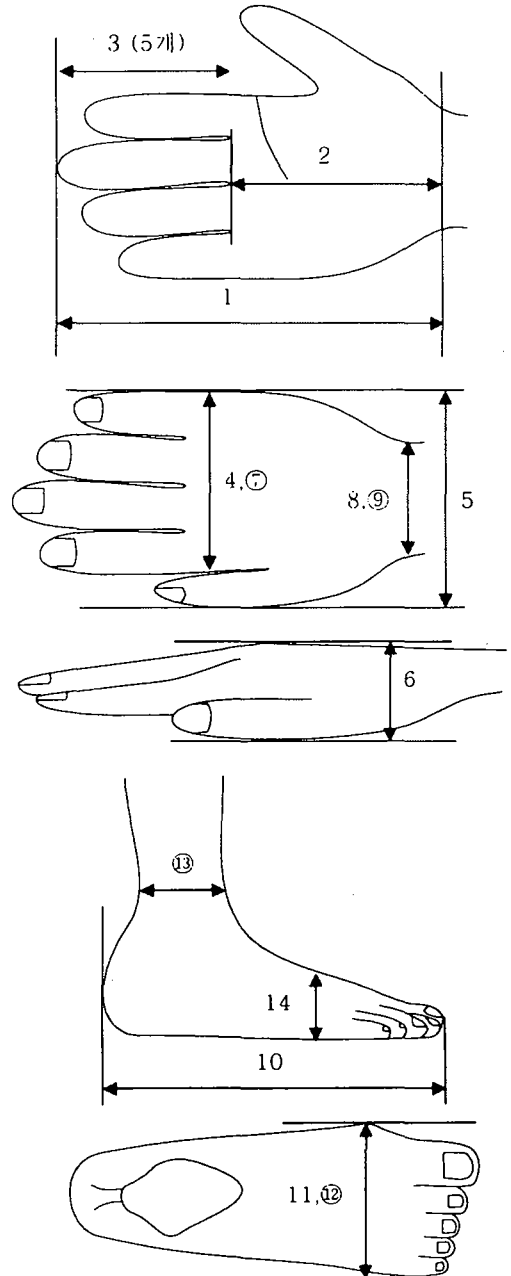


그림 1. 손발의 측정 항목. ㉠ : 둘레를 의미함.

III. 結 果

1. 사상인별 키와 몸무게의 비교분석

조사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를 사상인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몸무게는 태음인이 타체질에 비해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2. 사상인별 손의 계측치 비교분석

손 전체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체질별 계측치는 다음과 같았다.

손바닥길이에 대해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 남자에서만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손최대너비의 분석에서는 남자에서만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너비의 체질별 비교 분석 결과 남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가장 넓었으며, 여자에서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서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둘레는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손목둘레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전체에서 손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남자에서는 소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작아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서 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사상인별 손 계측치 비교 단위 : cm

		남 자	여 자
손바닥 길이	태음인	11.12±0.43*	10.25±0.32
	소양인	10.83±0.43*	9.98±0.24
	소음인	10.90±0.50	9.96±0.49
손최대너비	태음인	10.35±0.44*	9.03±0.40
	소양인	10.13±0.51	8.90±0.21
	소음인	9.96±0.63*	8.89±0.36
손목너비	태음인	5.85±0.23**	5.25±0.15*
	소양인	5.71±0.22	5.10±0.13
	소음인	5.66±0.22	5.08±0.20*
손목둘레	태음인	16.72±0.66**	15.10±0.46**
	소양인	16.22±0.58	14.54±0.39
	소음인	16.22±0.59	14.46±0.57
손바닥비	태음인	0.5812±0.05	0.5757±0.04*
	소양인	0.5782±0.06	0.5704±0.05
	소음인	0.5712±0.03*	0.5660±0.04*

value : Mean±S.D.

* : P<0.05 ** : P<0.01

표 2. 사상인별 키와 몸무게의 비교

	남		여	
	키(cm)	몸무게(kg)	키(cm)	몸무게(kg)
태음인	173.20±5.91	72.60±8.82**	163.93±4.39	60.00±9.85**
소양인	172.63±4.53	64.66±5.72	161.25±2.22	50.33±4.22
소음인	174.11±5.13	63.11±6.71	161.50±4.65	48.16±4.94

반면, 손길이·손너비·손두께·손둘레에서는 분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 사상인별 손 측정치 비교 단위 : cm

		남자	여자
손 길 이	태음인	19.14±0.73	17.82±0.62
	소양인	18.73±0.71	17.51±0.43
	소음인	19.10±0.91	17.61±0.85
손 너 비	태음인	8.35±0.32	7.51±0.33
	소양인	8.21±0.35	7.33±0.18
	소음인	8.18±0.35	7.38±0.30
손 두 께	태음인	3.25±0.27	2.85±0.14
	소양인	3.26±0.48	2.80±0.16
	소음인	3.14±0.19	2.77±0.19
손 둘 레	태음인	20.39±0.82	18.08±0.72
	소양인	19.98±0.82	17.80±0.37
	소음인	19.95±0.87	17.75±0.74

value : Mean±S.D.

사상인별 다섯 손가락의 길이의 분석 결과, 남자에서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에서는 체질간의 손가락 길이에는 어떤 유의성도 없었다(표 5).

키나 몸무게 등의 체격에 대한 손크기와 손두께를 사상체질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키에 대한 손길이의 비와 체중에 대한 손두께의 비 그리고 BMI에 대한 손두께의 비를 구하여 사상체질별로 비교하였다. 키에 대한 손길이의 비를 사상체질별로 비교 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체질별로 체중에 대한 손두께의 비율을 구하여 사상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서 체중에 대한 손두께의 비가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 보다 체중에 비해 손두께가 얇다는 것이다. 또한 사상인의 BMI지수에 대한 손두께비의 분석결과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타체질에 비해서 손두께/BMI의 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에 대한 손두께의 비율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표 6)

표 5. 사상인별 손가락길이의 비교.

단위:cm

		MLF I	MLF II	MLF III	MLF IV	MLF V
남자	태음인	6.155	7.157	8.030	7.433	5.902
	소양인	6.102	7.062*	7.902*	7.370*	5.822
	소음인	6.122	7.324*	8.185*	7.629*	6.038
여자	태음인	5.723	6.813	7.606	6.936	5.376
	소양인	5.525	6.733	7.554	6.975	5.408
	소음인	5.750	6.869	7.644	7.119	5.586

value : Mean±S.D. * : P<0.05

MLF I : Mean of First Finger Length
MLF III : Mean of Third Finger Length
MLF V : Mean of Fifth Finger Length

MLF II : Mean of Second Finger Length
MLF IV : Mean of Fourth Finger Leng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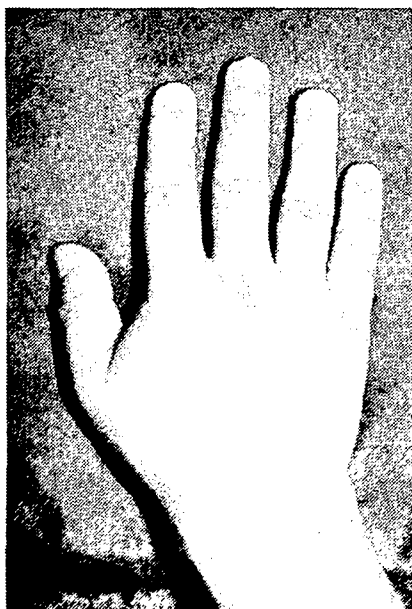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손의 계측치를 참고로 하여 각 계측 항목의 평균치에 가장 근접하며, 사상인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손의 모양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표 6. 사상인별 키, 신장과 손 계측치와의 비율 비교

		남	여
손길이 /키	태음인	0.1105±0.00302*	0.1087±0.00340
	소양인	0.1085±0.00331*	0.1086±0.00266
	소음인	0.1097±0.00387	0.1088±0.00319
손두께 /체중	태음인	0.04523±0.004725**	0.04842±0.006037**
	소양인	0.05076±0.007720	0.05603±0.005231
	소음인	0.05015±0.004046	0.05807±0.005713
손두께 /BMI	태음인	0.1352±0.01046**	0.1299±0.01636**
	소양인	0.1511±0.02246	0.1455±0.01228
	소음인	0.1518±0.01145	0.1511±0.01209

value : Mean±S.D.

* : P<0.05 ** : P<0.01



[남자]



[여자]

그림 2. 태음인의 손



[남자]



[여자]

그림 3. 소음인의 손



[남자]



[여자]

그림 4. 소양인의 손

3. 사상인별 발의 계측치 비교분석

발 전체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발의 계측치를 체질별로 비교한 결과, 발너비는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서 가장 넓었으며, 발둘레 또한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가장 컸다. 발목둘레는 남자에서는 태음인이 타체질에 비해서 가장 컸으나 여자에서는 체질별 유의성이 없었다.

반면, 발길이와 발두께는 체질별 유의성이 없었다 (표 7).

표 7. 사상인별 발계측치 비교 단위 : cm

		남자	여자
발 길 이	태음인	24.91 ± 1.75	22.95 ± 0.95
	소양인	24.54 ± 0.97	22.49 ± 0.65
	소음인	24.85 ± 1.20	22.70 ± 1.31
발 너 비	태음인	10.02 ± 0.94**	9.01 ± 0.44**
	소양인	9.50 ± 0.47	8.51 ± 0.27
	소음인	9.57 ± 0.46	8.57 ± 0.41
발 둘 레	태음인	24.73 ± 1.00**	22.46 ± 1.06**
	소양인	23.77 ± 0.98	21.42 ± 0.61
	소음인	23.90 ± 1.09	21.53 ± 0.81
발 목 둘 레	태음인	22.63 ± 1.02**	21.10 ± 1.15
	소양인	21.54 ± 1.25	20.34 ± 0.89
	소음인	21.48 ± 1.11	20.33 ± 1.26
발 두 께	태음인	4.35 ± 0.86	3.83 ± 0.27
	소양인	4.12 ± 0.25	3.63 ± 0.29
	소음인	4.05 ± 0.31	3.61 ± 0.27

value : Mean ± S.D.

** : P<0.01

IV. 考 察

동무 이제마는 우주만물의 구성과 생성변화의 원리를 事心身物과 四物類의 개념으로 요약 설명하였으며, 인간중심의 입장에서 여러 현상을 관찰 해석하였다. 흔히 의학은 질병의 치료면에 치중하나 사상의학은 철학적 배경 하에 性情의 中庸的 조절을 중요시하는 性情中心의 의학이다. 이런 개체간의 특성을 존중하는 사상의학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外形, 心性, 證 등을 제시하여 체질을 분류한다고 하였다. 體形氣像과 容貌詞氣를 기준으로 外形을 살피고, 性質才幹과 恒心을 기준으로 心性을 보며, 생리적인 體質證과 병리적인 體質證을 證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체질의 객관적 진단을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도 사상의학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체질 진단의 객관화는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手足에 관해서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나 후세에 손의 형태에 관하여 太陰人은 長大而平面狀, 少陽人은 骨格이 굵고 潤氣가 없으며, 肉이 없어 뼈만 있는 듯하고, 少陰人은 短大而曲線狀으로 安定感이 있고, 足形에서도 발목의 굵기에 대한 차이²⁴⁾를 논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신체 계측으로 체질별 상관성을 연구한 타 논문과 비교 하였다. 李壽瓊²⁵⁾ 등의 연구에서는 신장과 체질과는 유의성이 없고, 체중은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순으로 무거운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이번 연구와 일치되는 면이 있다. 李義柱⁶⁾ 등의 연구에서는 역시 신장과 체질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손목폭도 체질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이번 연구와는 상이하였다. 그 외 손목둘레와 발목둘레의 결과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환자를 대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당면하는 외형상의 차이점을 통하여, 특히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手足의 형태적 차이점이 사상체질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진행되었다. 손은 남녀의 크기 차이가 뚜렷하므로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수치의 차이를 체질간의 차이로 간주할 오류가 있어 남녀를 구분하여 계측치를 비교하였고, 手足의 크기는 하루 중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오후 1시~오후 5시경의 활동하는 시간대에 측정하였다.

본 논문은 형태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생체계측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측정상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측정부위가 手足의 부드러운 피부이므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극복할 수 없었다. 또, 계측항목이 많아 평가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이번 연구의 결과로 유의성 있는 항목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측정항목중에서 소양인의 특징만을 가려낼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태음인이나 소음인과 같은 음인에 비하면 소양인은 양인으로서의 특징이 있었는데 즉, 소양인은 음인에 비해 手足에서 처음 받는 느낌이 곱지 않으며 거칠고 투박하다는 양상을 보여주어 미흡하나마 분별점이 될 수 있었다. 또, 조사대상자의 체질을 분류함에 있어 임상적 진단 외 설문지를 이용하였는데 태양인을 가려낼 수 없는 QSCCⅡ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태양인이 한명도 없었는데 이는 추후 지속적인 설문지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진단 기준으로 제시한 부분 중 心性이나 證을 배제하고 외형적인 측면만을 다룬 것이므로 완전한 체질진단의 기준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원리론에 따른 체질변증의 지표들은

주관적인 경향을 띄기 쉬우므로 이러한 변증의 지표를 객관화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각 사상체질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키와 몸무게에 대하여 사상인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몸무게는 태음인이 타체질에 비해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손에서는 손바닥길이에 대해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 남자에서만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손 최대너비는 남자에서만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너비는 남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가장 넓었으며, 여자에서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서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둘레는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손목둘레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전체에서 손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는 소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작아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서 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사상인별 다섯 손가락의 길이의 분석 결과, 남자에서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키에 대한 손길이의 비를 사상체질별로 비교 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인별로 체중에 대한 손두께의 비율을 구하여 사상체질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서 체중에 대한 손두께의 비가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인의 BMI지수에 대한 손두께비의 분석결과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타체질에 비해서 손두께/BMI의 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에 대한 손

두께의 비율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표 6).

발 전체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발의 계측치를 체질별로 비교한 결과, 발너비는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서 가장 넓었으며, 발둘레 또한 남녀 모두에서 태음인이 가장 컸다. 발목둘레는 남자에서는 태음인이 타체질에 비해서 가장 컸으나 여자에서는 체질별 유의성이 없었다(표 7).

반면, 신장·손길이·손너비·손두께·손둘레·발길이·발두께는 체질별 유의성이 없었다. 그리고 사상인의 발은 사진상 눈에 띄는 뚜렷한 차이가 없어 따로 그림은 실지 않았다.

손최대너비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컸다(남).

손목너비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컸다(여).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길이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컸다(남).

3. 발의 특징

발두께와 발너비는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컸다(남, 여).

발목둘레는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컸다(남).

V. 結 論

이상과 같이 사상인별로手足의 형태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Martin식 계측법을 준용하여 148명(태음인 55명, 소양인 48명, 소음인 45명) 대상자들의手足을 생체 계측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신체의 특징

몸무게는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무거웠다(남, 여).

2. 손의 특징

손목둘레는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컸다(남, 여).

손 전체에서 손가락이 차지하는 비는 소음인이 태음인보다 컸다(남, 여).

손목너비는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컸다(남).

손바닥길이는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컸다(남).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86.
2. 김달래, 박성식, 권기록. 성문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 연구(1). 사상의학회지 1998; 10(1): 65-80.
3. 高炳熙, 趙鏞珍, 崔昌錫 외 6인. 四象體質別 頭面部의 形態學的 特徵. 사상의학회지 1996; 8(1): 101-186.
4. 許萬會, 宋正模, 金達來, 高炳熙.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2; 4(1): 107-148.
5. 洪錫喆, 이수경, 李義柱 외 5인.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 10(1): 101-142.
6. 李義柱, 李載九, 金貞娟, 宋正模.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 10(1): 143-160.
7. 洪錫喆, 이수경, 宋炳.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 10(1): 161-170.
8. 高炳熙, 宋炳. 四象體質辨證에 대한 小考. 대

- 한한의학회지 1985; 6(1): 40-47.
9.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 方法論 研究(第2報). 대한한의학회지 1987; 8(1): 146-160.
 10. 金達來. 設問紙를 이용한 體質鑑別方法의 信賴度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4; 6(1): 89-94.
 11.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3; 5(1): 61-80.
 12.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의 標準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6; 8(1): 247-294.
 13. 金映佑, 金鍾元. 設問紙를 통한 四象體質의 臨床的 分類方案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1): 215-233.
 14. 金鍾悅, 金敬堯, 宋正模. 體質判別表를 이용한 體質判別의 客觀化 方案. 사상의학회지 1998; 10(1): 181-213.
 15.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3; 5(1): 87-104.
 16.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에 對한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6; 8(1): 247-294.
 17. 梁基相.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清學的 研究. 서울, 경희한의대논문집 1983; 6(1): 33-45.
 18. 조동욱, 이창수, 고병희, 홍석철, 이의주, 조황성. 四象醫學의 客觀化를 위한 遺傳的 分析 研究. 韓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6; 2(1): 402-406.
 19. 洪錫喆.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體質別 脈狀과 脈診器에 의한 體質別 脈波의 比較. 大韓脈診學會紙 1995; 1(1): 79-100.
 20.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EAV의 測定値와 四象體質類型 및 中風과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5; 7(2): 59-88.
 21. 박성식, 최재영, 정민석 외 6인. 四象體質 類型과 指紋, 손바닥紋의 關聯性에 對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1): 81-99.
 22. 人類學講座 編纂委員會. 人體計測法. 東京: 雄山閣出版社, 1991; 104-109, 114-117.
 23. 李義柱, 高炳熙, 宋一炳.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5; 7(2): 89-100
 24. 金洲. 四象醫藥 性理臨床論. 大星文化社, 1997; 44.
 25. 李壽瓊, 李義柱, 洪錫喆, 高炳熙. 身體計測 및 檢査所見을 중심으로 한 四象인의 特徵에 대한 分析. 사상의학회지 1996; 8(1): 349-376.